

# 創造派 研究

— 日本 近代文學의 影響을 中心으로 —

金 永 和\*

## 目 次

- |                       |
|-----------------------|
| I. 序 論                |
| II. 創造派의 日本體驗         |
| III. 創造 發刊 背景         |
| IV. 創造派에게 끼친 日本文學의 影響 |
| 1. 金東仁                |
| 2. 田榮澤                |
| 3. 朱耀翰                |
| V. 結 論                |

## I. 序 論

韓國 近代文學의 起點을 어떻게 定할 것인가. 그것은 論者의 立場과 觀點에 따라 다를 것이다. 1896년 「독립신문」에 발표된 一連의 詩歌(開化歌辭)에서 그 起點을 찾을 수도 있고, 1906년에 나온 新小說에서 찾을 수도 있다. 좀더 내려 와서 1917년 전후의 泰西文藝新報에 발표된 金億등의 一連의 詩와 每日申報에 연재된 李光洙의 「無情」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韓國 近代文學은 短篇小說과 自由詩에서 그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또 단편소설과 자유시가 近代文學의 主軸이 된 것도 가볍게 볼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전제한다면 短篇小說의 出現과 自由詩의 出現은 1919년 2월 「創造」의 발간과 더불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創造」에 발표된 金東仁, 田榮澤의 短篇小說과 朱耀翰의 自由詩는 方法(形式)과 內容(主題)이 그보다 앞선 어떤 文學作品보다도 近代文學의 要素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創造派의 文學은 傳統의인 方法보다 西洋 近代文學 또는 日本 近代文學의 方法을 援用해서 작품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近代人의 思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想과 感情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近代文學의 要素가 강하다.

그리고 創造派의 出現은 同時代의 다른 文學志望生들에게 자극을 주어 「薔薇村」(1920), 「廢墟」(1920), 「白潮」(1922) 등 近代文學을 발표하는 同人誌의 발간과 同人活動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創造派의 출현과 활동은 이 땅에 近代文學을 定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同時代의 文學志望生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近代文學의 起點으로 定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韓國 近代文學의 形成背景을 理解하기 위해서 創造 同人들의 성장 배경, 교육 환경, 체험, 문학 수업 등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왜 文學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습작 과정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創造」라는 同人誌를 발간하게 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韓國 近代文學은 古典文學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점은 作品을 제작하는 方法이 다르고, 主題 또는 內容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韓國語로 表現했다는 점인데 그것도 古典文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우리의 近代化過程의 특수성에서 온 것이다. 草創期의 文人들이 대부분 日本 留學生들이었고, 그들은 日本에서 西洋文學 또는 日本 近代文學의 影響圈 아래서 文學修業을 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近代文學을 이 땅에 定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創造派의 文學을 살펴 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創造派의 성장 과정과 體驗內容을 살펴보고, 이어서 創造 發刊의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東京留學生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들의 文學에 끼친 日本文學의 영향을 考究하려 한다. 그것은 結果적으로 韓國 近代文學의 形成背景을 解明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 II. 創造派의 日本 體驗

創造 同人인 金東仁, 田榮澤, 朱耀翰 등의 공통점은 1910年代 東京留學生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東京에서 中學 또는 大學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日本 文化의 영향권 아래서 成長했다. 따라서 그들의 日本 體驗은 그들의 文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金東仁은 1900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金東仁은 기독교 계통인 승덕소학교를 졸업하고 이어서 기독교 계통의 중학교에 들어갔다. 日本에 유학을 가게 되자 중학교를 중퇴하고 열 다섯 살<sup>1)</sup>에 동경에 건너 갔다. 그 때부터 1919년 創造가 나올 때까지 약 5년간 일본에서 살았다. 感受性이 예민한 10代 後半을 日本에서 생활하면서 東京 學院 中學部를 거쳐 明治學院 中學部를 卒業하고 이어서 川端美術學院에 다니면서 그림을 공부하

1) 滿으로 열 네살, 1914년으로 推定된다. 「東仁全集 8卷」(弘字出版社, 1964), p.390. 參照.

면서 동시에 문학 공부를 했다.

東仁은 장래의 희망을 의학이나 법률에 두고 일본에 건너 갔다. 그런 그가 文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 1년 영어 시간이다.

중학 1학년 때에 英作文 시간에 숙제로서, 1년생 정도의 英作文 한 편씩이 과제 되었다. 나는 그 때 영어에 매우 취미를 붙이던 때라, 내가 아는 영어 지식의 최선을 다하여 영어 노래를 하나 지었다. 지금은 물론 그 내용과 스펠까지 잊었지만 「핑클핑클 리틀 스타」로 시작하여 몇 줄의 노래를 옥편을 뒤지기도, 참고서를 뒤지기도 만들어 내놓았더니, 선생이 보고 네가 지은 것이냐고 묻고, 내가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니 너는 장차 훌륭한 문학자가 되겠다고 칭찬하여 준다. 나는 선생의 칭찬을 듣고 이런 것이 문학인가 하여 문학의 윤곽을 짐작했다고 스스로 믿었다.<sup>2)</sup>

金東仁은 日本에 가서야 '文學'이라는 것을 意識했고 또 그의 日本 生活은 文學修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요일에는 아사쿠사(淺草)의 映畫館에서 영화를 자주 보았으며 그 무렵부터 탐정소설, 소년문학문고를 탐독하면서 소년기를 보냈다. 이 때 탐정소설이 아니면서도 마음이 끌리는 小説이 있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文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소년문학, 탐정소설 그 다음에 본격적인 문학 작품의 탐독——그것은 대체로 작가지망생들이 걷는 길이다. 金東仁도 예외가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가 탐독한 작품은 어떤 것일까.

金東仁이 남긴 여러 글들을 검토해 보았으나 분명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그가 접할 수 있었던 문학은 日本文學과 일본에 번역된 西洋文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東仁의 글 가운데 2회 이상 언급된 작가는 西洋作家의 경우 모파상(4회), 셰익스피어(4회), 유고(3회), 모르나아르(3회), 워츠던튼(3회), 체홉(2회), 택거리(2회), 따눈치오(2회)<sup>3)</sup> 등이고, 日本作家는 有島武郎(4회), 夏目漱石(3회), 尾崎紅葉(2회), 徳富蘆花(2회)<sup>4)</sup> 등 여러 작가를 거론하고 있으나 어느 特定作家에 傾倒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日本文學과 일본에 번역된 西洋文學을 탐독하면서 文學修業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결국 日本 體驗이 文學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田榮澤은 1894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났다. 1912년 열 여덟 살(만17세) 때 東京에 건너 가 靑山學院 中學部 4년에 편입하여 1915년 졸업하고 이어서 靑山學院 大學部 文科에 입학하여 1918년 졸업했다. 그는 다시 같은 學院 神學部에 入學했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했다. 1921년 다시 복학하여 1923년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5)</sup>

이 기록을 분석하면 1912년부터 「創造」가 발간된 1919년 2월까지 일본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기간에 한편으로는 神學에, 또 한편으로는 文學에 관심을 두고 10代 후반에서

2) 東仁全集. 8卷, p.391.

3) 金春美, 「金東仁研究」(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5), pp.93-95.

4) 윗 책, p.144-145.

5) 李御寧編, 「韓國作家傳記研究 下」(同和出版社, 1975), p.118.

20代 초반까지 지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그가 文學修業期에 읽은 작품들은 어떤 것일까. 田榮澤도 金東仁과 마찬가지로 日本文學 또는 日本에 소개된 西洋文學을 읽었으리라는 推定이 가능하다. 그는 東仁처럼 자기 자신의 文學活動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지 않아 어떤 方法으로 文學修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日本 體驗이 그의 文學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朱耀翰은 1900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에서 기독교 계통의 소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열 네 살(만 열 세 살) 때 日本에 건너 갔다. 그의 아버지가 동경 조선인 유학생 宣敎牧師로 있게 되어 金東仁보다 1년 먼저 건너 간 것이다.

그는 明治學院 中學部를 졸업하고 第一高를 다니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上海로 건너 갔다. 1913년부터 1919년까지 10대 後半을 日本에 살면서 文學修業을 했다.

筆者(주요한=인용자)가 詩歌에 對하여 興味를 느낀 것은 中學 二·三學年時代(東京 明治學院 中等部 在學時)였고, 最初에 읽은 것이 「竹久夢 二」(?)라는 이의 童詩集 「돈·타크」라는 것이었다. (「돈·타크」는 和蘭語로 「선·데이」即 日曜日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 題目이 暗示하는 바와 같이 外國情緒(Exoticism)와 感傷主義(Sentimentalism)를 混合한 童詩集이었고 역시 外國 趣味의 挿畫(특히 複雜한 線으로 얼켜진 特色있는 그림)를 挿入한 罫다란 冊이었다. 이 小冊이 少年期의 筆者의 想像力을 刺戟한 것은 事實이나, 그 外國情緒라든지 纖細한 感傷主義가 模倣慾을 자아내게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主要한 理由는 筆者에게 그러한 纖細를 模倣할 能力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三學年 時代에 손에 넣은 詩集으로는 「바이론詩集」(日譯), 「思ひ出」(Omoide)(北原白秋의 初期 作品), 그리고 日本 明治時代의 初期浪漫派 詩人들(島崎藤村, 蒲原有明, 土井晚翠)의 選集 등이었다. 이러한 作風들도 別로 模倣慾을 이르지 못하였다.

四, 五學年期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佛蘭西 世紀末作家의 詩를 日譯으로 接觸하게 되었으니 주로 永井荷風譯의 「珊瑚集」, 興謝野鐵幹譯의 「リラの花」(리라의 꽃), 上田敏 譯詩集 「海潮音」 등이었다. 이 冊들에 記錄된 수많은 作風들 중에서 특히 模倣心을 誘引한 것은 「폴·포르」와 「레니에」였다고 記憶된다.

나는 日語로서 上記 作風을 승내낸 것을 몇 편 지어서 投稿한 것이 因緣이 되어 川路柳虹이라는 이와 親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主宰하는 「現代詩歌」「曙」 등의 同人待遇를 받고 繼續해서 日語로 詩作을 試驗하였다. 川路氏는 畫家요, 美術批評家요, 또 詩人이었으며 佛語를 아는 佛文學系統 文人이었다. 그래서 나는 中學을 卒業하고 高等學校(大學豫科)로 들어 갈 때에 「佛文科」를 志望했던 것이다.

「現代詩歌」(日文) 雜誌에 「이미지스트」 紹介特輯에 있어서 「프로스트」「아미·로셀」 등의 作風이 소개되었고 나는 그 作風을 승내낸 日語詩를 發表한 일도 있다.<sup>6)</sup>

이 인용문을 분석하면 朱耀翰이 文學修業 過程을 알 수 있다. 中學 2·3學年 때 童詩集, 3學年

6) 「自由文學」 創刊號(1956.6.1), pp.134-137.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一志社, 1974), pp.302-303. 再引用.

때 日譯「바이런詩集」과 北原白秋의 初期詩와 明治期の 浪漫派 詩人들의 詩, 4·5學年 때 日譯 프랑스 世紀末 詩人들의 詩와 프로스트, 아미·로웰 등의 詩를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日本詩 또는 日本에 紹介된 西洋詩를 읽으면서 문학 수업을 했다는 것은 日本體驗과 그의 文學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創造派의 金東仁, 田榮澤, 朱耀翰 등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日本文學의 影響圈 아래서 文學 修業을 했으며 結果적으로 그들의 作品 가운데는 日本文學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작품이 있으리라는 推定이 가능하다.

이들이 읽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日本文學은 明治·大正期の 文學이다. 明治·大正期에는 森鷗外(1862-1922), 夏目漱石(1867-1916), 徳富蘆花(1868-1927), 田山花袋(1871-1930), 國木田獨步(1871-1908), 岩野泡鳴(1873-1920), 永井荷風(1879-1959), 正宗白鳥(1879-1962), 谷崎潤一郎(1886-1965), 有島武郎(1878-1923), 島崎藤村(1872-1943), 土井晚翠(1871-1952), 蒲原有名(1876-1952), 北原白秋(1885-1942), 上田敏(1874-1916), 與謝野鐵幹(1873~1935) 등이 作品活動을 했다. 이들의 作品中 一部가 創造派의 讀書對象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金東仁은 國木田獨步, 有島武郎, 谷崎潤一郎, 田榮澤은 國木田獨步, 朱耀翰은 上田敏, 永井荷風, 與謝野鐵幹의 譯詩集 등을 읽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 Ⅲ. 創造 發刊 背景

同人誌「創造」는 1919년 2월 創刊號가 東京에서 發刊됐다. 여기에 金東仁은 「弱한 者의 슬픔」을, 田榮澤은 「惠善의 死」를, 朱耀翰은 「불놀이」와 日本近代詩抄(I)를 발표했다. 創造가 나오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18년 12월 스무닷새날 밤이었다.

일본 東京(本郷)에 있는 내 하숙에는 나하고 朱耀翰하고가 화로를 끼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中略〕耀翰과 내가 마주 앉으면 언제든, 이야기는 중국은 「문학담」으로 되어 버렸다.〔中略〕막연한 「문학담」 「문학토론」보다도 구체적으로 新文學運動을 일으켜 보자는 것이 요한과 내가 대할 적마다 나오는 이야기였다.

이 밤도 우리의 이야기는 그리고 뻗었다. 그리고 문학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同人制로 문학 잡지를 하나 시작하자는 데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진전되었다.

2百원이면 창간호를 낼 수 있다. 그리고 每號 백원씩 추가하면 계속 발간할 수 있다는 耀翰의 말에, 그러면 자금은 내가 부담하기로 하고, 자금도 자금이러니와 손 맞잡고 일해 나갈 同人을 고르고자 하여 늘봄 田榮澤(長春), 흰뿔(白岳: 金煥), 崔承萬 등을 우선 내일이라도 찾아 가서 同人되기를 권유하고〔중략〕

잡지의 이름은 《創造》라 하기로 하고 밝는 날 곧 평양 어머님께 전보 쳐서 창간비 이백원을

청구하기로 하고 둘(요한과 나)이서 내 하숙집 자리에 든 것은 새벽 다섯 시도 지나서 우유 배달의 소리를 들으면서였다.〔中略〕

우편국에 들어서 이백원 보내 달라는 전보를 어머니께 치고 아오야마의 田榮澤을 찾아서 함께 金換을 방문하고 다시 崔承萬을 방문하여 모두 同人되마는 快樂을 듣고 耀翰, 田榮澤, 나 셋이서 어떤 양식점에 들어서서 함께 런취를 먹을 때 우리들의 기쁨의 흥분으로 떠드는 異國 말 소리에 다른 客들은 놀라는 눈을 우리에게 던졌다.

— 이리하여 四千年, 이 민족에게는 「新文學」이라는 꽃이 그 봉오리를 벌리기 시작하였다.”

金東仁의 이 진술이 맞다면 「創造」의 발간은 이 땅에 '新文學運動'을 일으켜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곧 近代文學運動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同人活動과 同人誌의 발간에 대한 힌트 또는 發想은 어디서 온 것일까. 朝鮮時代는 말할 것도 없고, 開化期에도 同人活動이나 同人誌는 없었다. 崔南善이 발간한 「少年」·「青春」 등의 雜誌나 동경 유학생들의 글을 발표했던 「學之光」이 있었지만 그것은 순수한 文學 同人誌로는 볼 수 없다. 同人誌 또는 文學雜誌로서는 「創造」가 처음이다. 이런 「創造」의 발간 배경에는 日本文壇의 여러 同人誌가 하나의 發想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文壇에는 1885년 尾崎紅葉, 山田美妙 등이 同人性格의 硯友社를 조직하고 同人誌 性格의 「我樂多文庫」를 창간한 것을 시작으로<sup>7)</sup> 「國民之友」(1889), 「早稻田文學」(1891), 「文學界」(1893), 「白樺」(1910), 「三田文學」(1910) 등이 계속 創刊되었으며 「創造」가 창간될 무렵에 이들 잡지의 일부가 계속 刊行되어 발표 무대로서의 文學雜誌 내지 同人誌의 필요성을 金東仁과 朱耀翰은 절실히 느꼈던 것 같다.

「創造」의 創刊號와 2號에 주요한의 「日本近代詩抄」를 연재했다는 점도 「創造」 발간과 日本文學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創造」發刊 그 自體가 日本文學 나아가 日本文壇의 影響圈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도 創造派가 日本文學의 영향을 받고 文學活動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創造」의 發刊을 계기로 「廢墟」, 「白潮」 등 同人誌가 이어서 나왔다. 이런 同人誌의 出現과 同人活動은 近代文學을 이 땅에 定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일에 앞장 선 것이 「創造」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韓國 近代文學과 日本 近代文學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東仁全集 8卷, pp.380-381.

8) 中村光夫, 「明治文學史」(筑摩書房, 1979), p.107.

## IV. 創造派에 끼친 日本文學의 影響

### 1. 金東仁

#### 1) 배따라기

金東仁의 「배따라기」(1921)는 小說의 方法이 독특하다. 傳統의인 說話의 方法이나 古典小說의 方法과 큰 차이가 있다. 이 소설은 副人物이 등장해서 主人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金東仁은 그것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

그것을 探索하기 위해 筆者는 東仁의 소설과 日本 近代小說을 비교한 바 있다.<sup>9)</sup>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 「배따라기」는 그 方法에 있어서 日本의 國木田獨步의 「運命論者」(1902)의 方法과 아주 비슷하다. 우선 두 소설의 플롯과 視點을 비교하면 그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배따라기」의 플롯은 다음과 같다.

(1) 副人物인 話者 〈나〉가 등장한다. 그는 따뜻한 어느 봄날 대동강변을 산책하면서 그의 心境을 수필적 접근으로 서술한다. 이 소설의 프롤로그에 해당된다. 그 일부를 인용한다.

좋은 일기이다.

좋은 일기라도, 하늘에 구름 한점 없는——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접근 못할 위엄을 가지고 높이서 우리 조그만 사람을 비웃는 듯이 내려다 보는 그런 교만한 하늘은 아니고, 가장 우리 사람의 이해자인 듯이 낮추 몽글몽글 영기는 분홍빛 구름으로서 우리와 서로 손잡자는 그런 하늘이다.

나는 잠시도 멎지 않고 푸른 물을 황해로 부어 내리는 대동강을 향한, 모란봉 기슭 새파랗게 돌아나는 풀 위에 덩굴고 있었다.<sup>10)</sup>

계절은 봄, 장소는 대동강변을 話者인 〈나〉는 산책을 하고 있다. 그날은 마침 뱃놀이를 하는 날이어서 妓生들의 애처로운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 애조를 띤 노래를 들으며 맑은 하늘 아래서 봄 경치에 취한다.

여기까지 읽은 讀者들은 主人公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한가로운 사나이가 대동강변을 산책하면서 봄을 완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다음 단계의 플롯은 갑자기 전환된다.

9) 金永和, 「現代作家論」(文章社, 1983), p.9. 참조.

10) 東仁全集 7卷, p.188.

(2) 화자인 <나>가 봄 경치에 취해 있을 때 어디서 슬픈 '배따라기'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봄 경치에 취해 있던 話者는 호기심으로 노래의 주인공을 찾는다. 讀者들은 한편으로는 話者를 의식하면서 동시에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된다. 일종의 單調로움을 깨는 變化의 手法이다.

소리나는 곳을 더듬어서 소나무 틈으로 한참 돌다가, 겨우 기자묘치고는 그 중 하늘이 넓고 밝은 곳에, 혼자서 덩굴고 있는 그를 찾아 내었다. 나의 생각한 바와 같은 얼굴이다. 얼굴, 코, 입, 눈, 몸집이 모두 네모 나고 그의 이마의 굵은 주름살과 눈썹은 고생 많이함과 순진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는 어떤 신사(話者임=인용자)가 자기를 들여다 보는 것을 보고, 노래를 그치고 일어나 앉는다.〔中略〕

「자 노형의 경험담이나 한번 들어 봅시다. 감출 일이 아니면 한번 이야기 해 보소.」<sup>11)</sup>

노래의 主人公을 만나서 그에게 경험담(내력)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독자를 차츰차츰 화자인 <나>로부터 主人公으로 이끌어 가면서 그를 통해 그의 내력을 듣게 만든다.

(3) 이 소설의 중심부인 主人公의 삶을 소개한다. 그의 삶은 화자인 <나>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이질적이고 특수한 것이다. 질투와 疑妻症과 그로 인한 파탄을 길게 서술한다. 이 때 독자는 화자인 <나>를 완전히 잊고 '배따라기'를 구슬프게 불렀던 主人公의 세계로 시선을 돌린다. 이 작은 이야기 속에 小說의 일반적인 플롯인 發端, 紛糾, 絶頂, 結末을 차례대로 서술한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小說이 된다.

(4) '배따라기'의 主人公의 人生을 음미하는 話者의 心境이 소개된다. 그의 비극적인 삶에 눈을 돌렸던 독자들은 그런 삶을 음미하고 코멘트하는 話者를 다시 만난다. 이 때 독자는 주인공과 화자 두 人物을 동시에 의식하면서 人生의 문제를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이 소설의 에필로그에 해당된다.

말을 끝낸 그의 눈에는 저녁해에 반사하여 몇 방울의 눈물이 반짝인다.〔中略〕 그는 다시 한번 나(話者임=인용자)를 위하여 배따라기를 불렀다. 아아, 그 속에 잠겨 있는 삭이지 못할 뉘우침, 바다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

노래를 끝낸 다음에 일어서서 시뻘건 저녁해를 잔뜩 등으로 받고, 울밑대를 향하여 티벳티벳 걸어 간다. 나는 그를 말할 힘도 없어서 멀거니 그의 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배따라기와 그의 숙명적 경험담이 귀에 쟁쟁이 울리어서 잠을 못 이루고 이튿날 아침 조반도 안 먹고 기자묘로 뛰어가서 또다시 그를 찾아 보았다. 그가 어제 깔고 앉았던 풀은 모두 한편으로 누워서 그가 다녀감을 기념하되 그는 그 근처에 보이지 않았다.<sup>12)</sup>

11) 윗 책, p.192.

12) 윗 책, p.200.

讀者는 '배따라기'를 슬프게 불렀던 주인공의 삶과 그런 삶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話者이 心境을 동시에 읽는다.

따라서 이 소설의 방법은 4단계의 변화를 보이면서 이 소설의 主人公과 話者를 同時に 意識하면서 읽도록 플롯의 二重性을 갖는 독특한 방법이다.

이런 方法은 國木田獨歩의 「運命論者」에서도 볼 수 있다.

(1)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가까와지면 어느 바닷가나 쓸쓸해진다. 카마쿠라의 해변도 마찬가지다.〔中略〕

하루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메리가와의 부근까지 걸어가서 언덕에 올라서자마자 생각지 못했던 북풍이 불어와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中略〕

햇빛은 따뜻하게 비치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이곳에서는 바다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다 기슭에 와 닿는 물결 소리가 조용하게 들릴 뿐 사방은 조용했다.<sup>13)</sup>

季節은 늦가을, 장소는 카마쿠라의 해변을 話者인 <나>는 산책하고 있다. 높고 푸른 하늘, 조용한 물결소리가 들리는 바닷가다. 때와 장소가 독자들의 독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런 곳을 한가하게 散策하는 <나>의 행동은 독자들의 日常과는 거리가 있어서 자연히 독자들의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 소설의 프롤로그에 해당된다.

(2) 내가 있는 곳에서 네댓간쯤 떨어진 곳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언제 이곳에 왔으며, 어디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中略〕 나이는 삼십세 전후, 긴 얼굴에 코가 큰 남자였다.〔中略〕

「만일 선생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저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해 주세요. 이번에는 내가 들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sup>14)</sup>

지금까지 話者인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던 讀者는 갑자기 나타난 <어떤 남자>(다카하시 신조오)에게로 관심이 옮겨 간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독자의 호기심은 <나>에게서 <어떤 남자>로 옮겨 가게 된 것이다.

(3)은 이 소설의 핵심이다. 주인공인 <다카하시 신조오>의 人生이 소개된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가 알고 보니 아버지를 배반하고 달아난 어머니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결국 아버지가 다른 누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엄청난 惡運에 고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13) 「現代日本文學全集 14」(筑摩書房, 1961), p.96.

14) 윗 책, pp.96-99.

(4) 나는 한마디 대꾸없이 그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다 듣고 나서 한 동안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측은하게 여겨졌다. [中略]

나는 그와 악수를 하고 목례를 한 뒤에 헤어졌다. 해는 이미 겨서 저녁 노을이 서녘 하늘을 빨갭게 물들이고 있었다. 뒤를 돌아 보았더니 아까의 그 신사는 모래 언덕에 올라 서서 바다를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sup>15)</sup>

이 소설의 에필로그에 해당된다. 독자는 비극의 주인공인 <다카하시 신조오>와 이를 바라보고 있는 話者인 <나>의 心境을 동시에 읽게 된다.

「배따라기」와 「運命論者」는 플롯도 비슷하지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도 비슷하다. 「배따라기」가 봄과 대동강을 묘사하면서 그곳을 散策하는 사람의 心境을 그렸다면 「運命論者」는 늦가을 카마쿠라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의 심경을 그리고 있다. 두 作品 모두 世俗의 번잡한 곳을 떠나 江邊 또는 海邊으로 背景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人間事를 세속과 일정한 거리에 놓고 바라보자는 의도일 것이다. 인간사에는 비극이 있게 마련이라는 제시와 함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人間의 運命임을 암시한다. 두 소설의 話者들은 悲劇을 바라볼 뿐 해결할 길을 제시할 수 없는 안타까운 心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소설의 話者는 비슷한 데가 있다. 첫째는 知識人들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의 삶을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점이다. 前者가 金東仁의 그림자라면 後者는 國木田獨歩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두 소설은 플롯과 함께 視點도 (3)을 제외하면 같다. (1)의 단계가 1인칭 A형, (2)의 단계가 1인칭 B형, (4)의 단계가 다시 1인칭 A형이고 다만 (3)의 단계가 前者가 3인칭 B형을, 後者가 1인칭 A형을 택하고 있으나 골격은 거의 비슷하다.<sup>16)</sup>

따라서 「배따라기」(1921)는 「運命論者」(1902)의 方法을 援用해서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배따라기」는 國木田獨歩의 다른 소설인 「女難」(1903)과도 유사하다.<sup>17)</sup> 결국 金東仁은 小說의 方法에 있어서 國木田獨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2) 「감자」·其他

金東仁의 「감자」(1925·1)는 初期作을 대표하는 「배따라기」와는 다른 세계를 보이는 작품이다. 作品世界도 그렇고 作品을 쓰는 方法도 다르다. 「배따라기」보다 4년 후에 나온 이 작품의 특이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

韓國小說史의 觀點에서 볼 때 이 소설의 특이성은 作中人物의 性格에 있다. 등장인물인 <복녀>

15) 윗 책, p.106.

16) 좀 더 자세한 것은 拙稿 “金東仁 小說의 視點”, 「現代作家論」 참조.

17) 金松峴, “初創期 小說의 源泉 探索” 「現代文學」 177號(1964.9). p.88.

의 부부는 無學이고 經濟的으로 最下層民이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道德觀이나 倫理觀은 특이하다. <복녀>는 처음 어느 정도의 도덕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무너져 賣春을 자연스럽게 계속한다. 이런 아내를 오히려 환영하고 아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남편도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며, 그가 지닌 道德觀이나 倫理觀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런 부부의 삶을 形象化하는 데 金東仁은 어디서 發想의 源泉을 찾았을까. 적어도 종래의 한국 문학은 아니다. 이런 세계와 비슷한 것은 그가 읽었을 것으로 보이는 日本文學에는 있다. 우선 岩野泡鳴의 「熊か人間か」(1913)의 <타미조오>와 <오타케> 부부의 삶과 닮은 데가 있고, 有島武郎의 「カインの末裔」(1917)의 <仁右衛門> 부부의 삶과 닮은 데도 있다. 특히 <カインの末裔>의 作中人物들이 神으로부터 버림받은 人物이라면 <복녀> 부부도 마찬가지다. 人間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道德이나 倫理마저 버리고 떠돌이 삶을 사는 점도 비슷하다. 이 점도 日本文學의 影響圈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자주 거론되는 「狂畫師」(1935)와 谷崎潤一郎의 「刺青」(1910)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듯<sup>18)</sup> 이 작품 역시 일본 문학의 영향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東仁의 주요 작품인 「배따라기」, 「감자」, 「狂畫師」만 검토해도 金東仁과 日本 近代文學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田榮澤

田榮澤의 「天痴나 天才나」(1919)의 源泉은 國木田獨歩의 「春の鳥」(1904)에서 찾을 수 있다.<sup>19)</sup> 우선 두 소설은 作中人物의 設定, 内容 등이 비슷하지만, 특히 視點과 플롯의 展開에 공통성이 있다.

視點과 플롯은 小説의 方法으로 田榮澤은 습작 과정에서 國木田獨歩의 短篇小説를 읽고 그 方法을 배운 것 같다. 初期小説에 해당하는 「天痴나 天才나」의 方法은 「春の鳥」의 方法을 援用했음을 두 소설을 세밀하게 읽으면 이내 알 수 있다.

「天痴나 天才나」의 視點은 크게 보아 1인칭 관찰자의 방법(1인칭 B型)을 택하고 있다. 話者로서 교사인 <나>가 등장하여 <나>의 심경, 교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경위 등을 서술하다가 부임지에서 만난 한 소년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讀者는 처음 이 소설을 읽을 때 교사인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다가 교사가 만난 한 소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讀者를 主人公인 소년에게 끌어가는 가교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점은 「春の鳥」의 視點과 거의 일치한다.

18) 金春美, 「金東仁研究」, p.186.

19) 金松峴, 「「천치나 천재나」의 源泉 探索」 「現代文學」 100號 (1963.4), p.429.

플롯의 展開에 있어서도 두 소설은 비슷하다. 모두 5단계의 전개로 分析할 수 있는데 「天痴나 天才나」의 경우,

(1) 話者인 <나>가 등장하여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해 보았던 일들을 나열하고 어째서 교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는가를 밝히고 평안도 중화군에 있는 특영학교로 부임한다. - 發端.

(2) 교사인 <나>는 부임지에서 <칠성이>라는 좀 특이한 소년을 만나, 그의 처지, 성격 등을 알게 되자 동정이 가고, 그래서 그를 잘 가르쳐 보겠다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는다. - 發展.

(3) <칠성이>를 잘 가르쳐 보려는 <나>의 노력은 시간이 갈수록 헛수고가 된다.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만년필을 망가뜨리거나 남의 시계를 분해해서 못쓰게 만드는 등 <나>의 指導와는 반대되는 일을 계속 저질러 교사인 <나>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칠성이>를 잘 관찰하면 科學者들에게서 볼 수 있는 天才性, 聲樂家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칠성이>의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하기에도 지쳐 복잡한 감정에 빠진다. - 갈등.

(4) 단순하고 무지하며 이해력이 부족한 주변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한 <칠성이>는 자유로운 곳(평양)으로 가다가 얼어 죽는다. 현실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少年의 이야기를 통해서 讀者들을 感情의 高調狀態로 이끌어 간다. - 絶頂.

(5) <칠성이>가 죽은 후 이에 대한 <나>의 感想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다. - 結末. 이런 플롯의 展開는 「春의鳥」와 비슷하다.

(1) 교사인 <나>가 등장하여 지방에 있는 학교에 부임하고 부임지에서 하숙하는 과정이 소개된다. - 發端.

(2) <나>가 산보를 갔다가 白痴 少年인 <六藏>을 만나고 그를 가르치겠다고 결심한다. - 發展.

(3) 그러나 아무리 少年에게 數의 觀念 등을 가르쳤으나 헛수고가 된다. 대신에 <六藏>은 산을 잘 오르기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른다. 白痴이면서도 좋은 점이 있어서 교사인 <나>는 곤혹과 애정의 갈등에 빠진다. - 갈등.

(4) 이런 <六藏>이 새처럼 날겠다고 높은 돌담 위에서 날려다가 떨어져 죽는다. - 絶頂.

(5) 죽은 아들을 애처롭게 생각하는 그의 어머니의 행위와 <나>의 심경의 서술된다. - 結末. 두 小説을 對比해 보면 觀點과 아울러 플롯도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小説文章을 敬語體로 쓰고 있는 점도 같다.

나는 성년도 되기 전부터 못 해본 것이 없이 별 것을 다 하였나이다. 어려서는 물론 학교도 다녔지요. 그리고는 주사(관리)도 하였나이다.”(加點=引用者)

20)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A-4 (文元閣, 1974), p.29.

今より六七年前、私はある地方に英語と數學の教師をしていたことがございます。その町に城山というのがあって、大木暗く茂った山で、あまり高くはないが、はなはだ風景に富んでいました。ゆえ、私は散歩がてらいつもこの山に登りました<sup>21)</sup>。(加點=引用者)

두 소설의 등장人物的 設定은 비슷하다.<sup>22)</sup> 그러나 中心人物인 <칠성이>와 <六藏>은 正常的인 少年이 아니라는 共通點이 있으나 좀더 자세히 읽으면 다르다. <칠성이>는 만년필, 時計 등을 分解하여 그 原理를 알아 보려는 科學的 才能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그의 才能을 이해하고 그것을 북돋우어 주는 教育을 한다면 훌륭한 科學者나 훌륭한 聲樂家가 될 가능성을 지닌 少年으로 設定되어 있다. 그러나 <六藏>은 數의 觀念이 회박하여 열까지 셀 줄도 모르는 少年이고 새처럼 날 수 있다고 믿는 白痴다. 따라서 <칠성이>가 天痴인지, 天才인지 判斷을 留保하는 田榮澤의 作品과 白痴라는 것을 그대로 認定하는 國木田獨歩의 作品과는 中心人物의 設定에 있어서 視覺差가 있다.

作品의 主題도 前者가 才能을 가진 한 少年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사람들에 의해 회생되는 과정이 제시되었다면 後者는 人間을 超越한 自然의 일부로서 存在하지 못하는 白痴少年의 悲劇을 제시하고 있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제 또는 內容에 있어서도 田榮澤의 獨自性이 있다. 그러나 方法에 있어서는 「春の鳥」의 方法을 援用하고 있어서 日本의 近代小説, 특히 國木田獨歩의 영향 아래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田榮澤의 小説 가운데 「毒藥을 마시는 女人」(1921)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小説의 제목은 岩野泡鳴의 「毒藥を飲む女」(1914)의 그것을 번역한 듯한 느낌을 준다.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제목을 달고 있어서 이것도 日本文學의 影響권 아래서 文學을 시작한 이 작가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3. 朱耀翰

朱耀翰은 10대에 日本에서 中學校와 高等學校를 다녔다. 그 때 그는 日本 近代詩와 日本에 번역된 西洋詩를 읽으면서 文學修業을 했다. 그의 독서 범위는 日本 近代詩와 日本에 번역된 西洋詩를 폭넓게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創造 創刊號에 日本의 橫瀨夜雨의 詩 「오사이」(お才)를 번역해서 소개했다. 그리고 創造 창간호와 2호에 日本近代詩抄를 연재하기도 했다. 그가 소개한 日本의 近代詩는 島崎藤村의 「오기쿠」, 「네소매」, 「고모로의 넷 城가에서」, 土井晚翠의 「丞相」, 河井醉名의 「사쿠라소오(蓮馨花)」 橫瀨夜雨의 「오사이」 平木白星의 「어둠속

21) 國木田獨歩, “少年の悲哀”, (岩波文庫, 1987), p.45.

22) 八重樫愛子, “韓國近代小説과 國木田獨歩” 「건국어문학 11·12」(1987·4), p.709.

에서, 薄田泣菫의 「샘」, 「山雀」 蒲原有名の 「良來」, 「靈의 海의 蝕」, 岩野泡鳴의 「말업슨 돌」, 「열쇠를 달라」, 「달과 고양이」, 三木露風の 「四月」, 「마음 속Ⅱ」, 「마음 속Ⅲ」, 「롱금나무 미테」, 「봄」, 北原白秋의 「邪宗門秘曲」, 「미친 거리」, 「뿔을 불러」, 「하늘에 셋팔간」, 「어릴적 꿈」, 「류리 베는 이」, 「芥子꽃」 등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주요한은 日本 近代詩 전반에 걸쳐 독서의 폭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日本 近代詩에 깊이 빠져 들어 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作品의 源泉을 日本 近代詩에서 찾기는 힘들다. 日本 近代詩의 영향을 받고 詩를 제작했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그의 詩가 누구의 어떤 作品을 읽고 發想이나 技法을 터득했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

日本 近代詩와 韓國 近代詩와의 關聯樣相을 검토해 온 鄭漢模는 주요한의 初期詩가 日本에 번역되어 소개된 西洋詩와 關聯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3)</sup>

朱耀翰의 초기 시 「눈」의 第2聯과 「불놀이」의 第2聯은 프랑스의 폴 포르(Paul Fort : 1872-1960)의 詩 「ボン・トオ・シャンジュの上にて」의 日譯 「兩替橋」와 類似性이 있다는 것이다. 兩者 사이에는 形態面에서 散文的인 表記를 하고 있다는 點, 印象을 感覺적으로 파악하여 表現하고 있다는 점에서 共通性이 있으며, 「불놀이」와 「兩替橋」는 퍼스나가 서 있는 자리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아아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싯별건 불덩이가 춤을 춘다. 잠잠한 城門 우에서 내려다 보니, 물냄새 모랫냄새, 밤을 깨물고 하늘을 깨무는 햇불이 그래도 무어시 不足하여 제 몸까지 물고 쓰들 때, 혼자서 어두운 가슴 품은 절문 사람은 過去의 퍼런 꿈을 찬 江물 우에 내어 던지나, 無情한 물결이 그 기름자를 멈출 리가 있으랴?……<sup>24)</sup>

ボン・トオ・シャンジュ, 花市の晩。風のまにまに、ふはふはと、夏水仙のほひ、土の匂、あすはマリヤのお祭の宵宮にあたる賑やかさ。西の雲間に、河岸並に、金の入日がぼつとして、群集の上に、淡紅の光の波のてりかへし<sup>25)</sup>……

주요한의 「불놀이」와 폴 포르 詩의 日譯 「兩替橋」를 비교하면 ① 散文的인 表記를 하고 있는 점, ② 祝祭를 배경으로 設定하고 있다는 점, ③ 냄새의 이미지, 가령 「불놀이」에서는 「물냄새」, 「모랫냄새」를, 「兩替橋」에서는 「夏水仙のほひ」: 「土の匂」를 活用하고 있다는 점, ④ 퍼스나가 서 있는 자리가 비슷하다. 前者가 4월 초파일 대동강에서 불놀이 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後者는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8월 15일의 마리야의 祝祭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詩人 또는 퍼스나의 입장이 비슷해서 유사성이 있다. 이상 열거한 것 외에도 日本 新體詩의 詩形과 韻律에 큰

23)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 p.312.

24) 鄭漢模·金容稷, 「韓國現代詩要覽」(博英社, 1974), p.44.

25) 「日本の詩歌 28」譯詩集, (中央公論社, 1985), p.164.

革新을 가져 온 上田敏이 '自由詩形으로 國語體'<sup>26)</sup>로 번역한 점은 주요한의 初期詩의 特色인 自由詩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朱耀翰의 詩는 이 땅에 自由詩를 定着시키는데 기여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힘의 源泉은 日本 近代詩에서 얻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V. 結 論

「創造」同人인 金東仁, 田榮澤, 朱耀翰은 感受性이 예민한 10代의 少年時節 日本 東京에서 살았다. 그들이 東京에서 살았다는 것은 日本文化圈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 그들은 한편으로는 學業을 닦고, 또 한편으로는 文學作品을 읽으면서 文學修業을 했다. 그들이 문학 수업 과정에서 읽은 책들은 대체로 日本 近代文學, 특히 明治·大正期の 文學과 그 때 日本語로 번역된 西洋文學이다. 그들은 英語 등 西洋語를 공부하기는 했으나 原書를 읽을 만큼 語學 能力이 없었기 때문에 '日本語'를 매개로 한 西洋文學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文學의 背景 또는 源泉에는 日本 近代文學과 '日本語'로 번역된 西洋文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1919년 2월 韓國 最初の 文學 同人誌 「創造」를 발간하여 新文學運動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同人誌 發刊에 대한 發想 또는 힌트도 日本 文壇과 日本의 同人誌 및 文學雜誌에서 얻었다. 따라서 「創造」의 발간도 日本 文壇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日本文學 또는 日本 文壇과 관련을 가지면서 出發한 그들의 文學은 日本文學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金東仁의 「베따라기」와 國木田獨歩의 「運命論者」, 田榮澤의 「天痴나 天才나」와 國木田獨歩의 「春の鳥」, 그리고 朱耀翰 「불놀이」와 프랑스 폴·포르의 詩를 上田敏이 日本語로 번역한 「兩替橋」 등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두 作品들 사이에는 內容의 類似性도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形式, 方法의 類似性을 지적할 수 있다. 「創造」同人들은 그들의 문학 수업 과정에서 읽었을 것으로 보이는 日本文學 또는 日本에 紹介된 西洋文學에서 方法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들의 文學의 背景 또는 源泉에는 日本 近代文學과 西洋文學이 자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에 걸쳐 韓國은 西洋文化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길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西洋文學로부터의 直輸入이다. 19세기 말부터 西洋 宣教師를 중심으로 西洋人들과의 접촉을 통해 西洋文化를 받아들였는데, 1945년 이후에는 그 量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 둘째, 1876년 開港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는 日本을 통한 間接輸入이 계속되었다. 그것은 韓國 歷史의 특수성에 온 것으로 日本의 植民統治와 관련이 있다. 셋째 19세기말부터 20세기에 걸쳐 中國을 통한 間接輸入이 있었으나 그 量은 많은 것은 아니었다.

26) 윗 책, p.371.

創造 同人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植民地時代이고 그들은 日本文化의 영향 아래서 활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西洋文化와의 接觸은 日本을 媒介로 한 것이다. 그들의 文學方法은 크게 보면 西洋文學의 方法이다. 金東仁이나 田榮澤의 方法은 國木田獨歩의 方法에서 배운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國木田獨歩의 方法은 어떤가. 그는 모파쌍의 「La Ficelle」를 日本語로 「糸層」(1898년)이라고 번역한 바 있다. 모파쌍의 작품을 번역할 만큼 國木田獨歩는 모파쌍의 문학에 관심이 있었으며, 또 모파쌍의 소설의 方法을 援用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朱耀翰의 詩도 위에서 검토한 대로 프랑스 詩와 관련이 있어서, 創造 同人들은 日本을 媒介로 한 西洋文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韓國 近代文學 形成 背景의 한 要素다.

이 論文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위에서 검토한 것은 주로 形式·方法의 측면이고 內容 또는 思想의 측면에서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運命論者」에 나타난 國木田獨歩의 '運命觀'<sup>28)</sup> 과 「배따라기」에 나타난 運命觀의 비교, 워즈워드의 「白痴兒」(The Idiot Boy)와 「春の鳥」의 비교<sup>29)</sup>, 그리고 「春の鳥」에 나타난 思想과 田榮澤의 「天痴나 天才나」에 나타난 思想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랑스 世紀末의 詩와 朱耀翰의 詩를 비교하는 研究도 필요하다.

27) 八重樫愛子の 論文, p.705.

28) 北野昭彦, 「國木田獨歩의 文學」(櫻楓社, 1980), p.271.

29) 윗 책, p.180.

## 參 考 文 獻

- 創造1號(1919.2)～創造 9號(1921.5)  
 東仁全集 7・8卷, 弘字出版社, 1964.  
 現代韓國文學全集 A-4, 文元閣, 1974.  
 鄭漢模・金容稷, 「韓國現代詩要覽」博英社, 1974.  
 金松峴, “천치나 천재나”의 源泉探索, 「現代文學」100號 (1963.4)  
 ——, “初創期小説의 源泉探索” 「現代文學」117號 (1964.9)  
 金允植, 「韓國文學의 關聯樣相」, 一志社, 1974.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1974.  
 李御寧(編), 「韓國作家傳記研究 下」, 同和出版公社, 1975.  
 申東旭(編), 「金東仁研究」, 새문社, 1982.  
 金永和, 「現代作家論」文章社, 1983.  
 金春美, 「金東仁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5.  
 金允植, 「金東仁研究」, 民音社, 1987.  
 八重樫愛子, “韓國近代小説과 國木田獨步” 「건국어문학 11・12」, 1987.4.  
 방 더깁: 金東旭譯, 「比較文學」, 柱英社, 1975.  
 울리 히 바인슈타인: 이유영譯, 「비교문학론」, 弘盛社, 1981.  
 金澤東, 「比較文學論」, 새문社, 1984.  
 金澤東, 「韓國文學의 比較文學的 研究」, 一潮閣, 1982.  
 全圭泰, 「比較文學—그 國文學的 研究」, 二友出版社, 1981.  
 李慧淳(編), 「比較文學」, 文學과 知性社, 1985.  
 國木田獨步集(現代日本文學全集 14), 東京, 筑摩書房, 1961.  
 「日本の詩歌 28」譯詩集, 中央公論社, 1985.  
 芳賀 徹外, 「比較文學の理論」, 東京大學出版會, 1976.  
 中島健장(編), 「比較文學—目的と意義」, 東京, 清水弘文堂, 1982.  
 中村光夫, 「日本の近代小説」, 東京, 岩波新書, 1954.  
 柳田泉外, 「座談會, 明治文學史」, 東京, 岩波書店, 1961.  
 柳田泉外, 「座談會, 大正文學史」, 東京, 岩波書店, 1965.  
 佐佐木一雄, 「近代小説史」, 東京, 寧樂書房, 1965.  
 福田清人・本多 浩(編), 「國木田獨步」, 東京, 清水書院, 1966.

- 臼井吉見, 「大正文學史」, 東京, 筑摩書房, 1968.  
小林一郎, 「近代作家素描論」, 東京, 創研社, 1970.  
伊藤整, 「日本文壇史 11-12」, 東京, 講談社, 1971.  
小田切秀雄, 「現代文學史」(上卷), 東京, 集英社, 1975.  
久保田正文, 「作家論」, 東京, 永田書房, 1977.  
小田切秀雄, 「明治大正の作家たち I」, 東京, 第三文明社, 1978.  
中村光夫, 「明治文學史」, 東京, 筑摩書房, 1979.  
平岡敏夫・東郷克美(編), 「日本文學史概説」東京, 有精堂, 1979.  
北野昭彦, 「國木田獨歩の文學」, 東京, 櫻楓社, 1980.  
清水孝純外, 「近代日本文學史」, 東京, 雙文社, 1986.  
大久保典夫外, 「現代日本文學史」, 東京, 笠間書院, 1988.

## Summary

## A Study on the 'Changjo Group'

— Centering on the influence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

*Kim, Young-hwa*

Kim Dong-In, Chun Young-Taek and Choo Yo-Han of the 'Changjo Group' who let the modern literature set root on this country have all studied abroad in Japan in 1910s. Learning new knowledge in Tokyo, Japan, from boyhood until youth age, they were baptized with the modern Japanese culture which had been pursuing toward westernization since Meiji-Innovation.

Their pursuit of literature was achieved under these conditions and surroundings, and the literary works which they had mainly read were modern Japanese Literature and Western Literature translated into Japanese Language.

Those literary works they read during the period of literary apprenticeship have influenced on their literary works in a way or another.

Accordingly, this means that the literature of the 'Changjo Group' has been influenced by Japanese as well as Western Literature.

Those influences are noticed especially in the following examples :

Firstly, by analyzing elaborately "Baetaragi" (1921) of Kim Dong-In, we can find, that the point of view and plot is quite similar to that of "Unmeironsha" (1902) of Kunikida Topbo. This means that the technique of novel-writing of Kunikita has had influence on that of Kim Dong-In.

Secondly, if we analyze "Idiot or Jenius" (1919) of Chun Young-taek, we know that the setting of character, the processing of plot and the point of view etc, are very similar to "Spring Bird, Harunotori" (1904) of Kunikita. This again means that Chun Young-Taek was unconsciously influenced by Kunikita during reading his novels.

Thirdly, the early day's poems of Choo Yo-Han such as "Fire Play, Bulnori" show resemblance of French Poems translated into Japanese, in its rhythm, setting of talker etc. This shows that Choo Yo-Han learned the techniques of it engaging in favorite reading of French poems in Japanese, which denotes his receiving of a kind of influence

In the early days of the literature of the 'Changjo Group', the influence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was remarkable.

We are able to know that modern Japanese Literature since Meiji-Innovation has great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f we consider that the 'Changjo Group' of Korean Literature has contributed to set its root of modern literature in this country.